"창종 50주년 맞아 영역별 기념사업 진행"

총지종 인선 통리원장 6월 28일 간담회서

다큐 제작 · 종조일대기 편찬
〈불사법요〉발간, 종법개정도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총지종은 내년인 2022년 창종 50주년을 맞아 현재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각 영역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총지사에 이어 올해는 통리원과 종조전 및 본산 중창불사 등 정비 사업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통리원 2층 반야실서 창종 50주년 기념 사업 및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종 50년 다큐멘터리 제작(10월) △종조인 원정대성사 일대기 편찬(11월) △불교총지종 50년사 발간(12월 6일)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선정사는 "종단 50년사(가제)와 종조 일대기 발간 및 출판 기념회를 위해 현재 원고 수정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총지종 50년 기념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50주년과 맞물려 핵심 사업중 하나인 정각사 득락전 헌공가지 불사, 법성사 헌공 불사, 제13회 경로잔치,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강화에 이어 최근에는 통리원을 비롯해 종조전(종조 진영 봉안) 및 본산 중창불사와 부산 덕화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완료했다"며 "총지종은 수행과 교화의 끈을 놓지 않고 종지 종풍 확립에 지속적으로 매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불교총지종 역삼동 통리원은 1984년 완공된 3층 건물로 건축된 지 37년만에 이번에 새롭게 단장했다. 인선정사는 "중앙 통리원 주업무가 일선 포교당인 서원당 지원인 만큼 중앙 불사의 재정적 지원이 힘들어 그동안 중창이 어려웠다"며 "창종 50주년을 맞아 종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이번 중창불사를 추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6월 28일 창종 5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선정사는 코로나로 중단된 국내외 행사 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10회 국제재가불자대회를 비롯해 자성일등을 지키고 7년이 되야 자격이 되는 수계법회, 제30회 청소년 어린이 법회 등이 잠정 연기 됐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 및 정부 대응 지침 여부에 따라 준비 중인 사업들이 차기 집행부서 여법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불교총지종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소개했다. 인선 정사는 "의식 · 의궤 재정비 및 통일 안을 담은 종기 50년(개정판) 〈불사법요〉를 발간하고, 종헌 · 종법 개정 추진위를 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동안 기존 법회 시간이 불공과 설법을 포함해 2시간 정도 소요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평균 1시간 20분 정도로 축소됐다"며 "그동안 종단의 의식과 의궤 등이 복잡하고 길어 젊은 세대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젊은 세대들이 시대에 맞게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인선 통리원장은 "총지종은 창종 후 신도 수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연중 불공기간(90일)이 너무 길고, 종단 홍보가 부족했던 게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한다"며 "창종 50년을 맞아 정사 · 전수님의 가사와 평상복 변화를 시작으로 종단 운영에도 시대 흐름에 맞는 변화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총지종은 최근 수행 기간에 따라 가사를 구분하고, 정사 · 전수들의 평상복을 검은색 양복과 한복서 회색 양복과 양장으로 바꿔 교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 1월 28일 통리원장 6년 연임 임기를 모두 마치게 되는 인선 정사는 총지종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묻는 질문에 "어려운 이웃을 껴안고 돌보는 게 불교의 근본 역할이다. 이에 종단의 운영 경비는 각종 부대 사업과 임대수입 등을 통해 마련되므로, 종도들의 보시금 만큼은 모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재임 기간중 종단 복지재단 산하 기관을 기존 두배인 11개로 늘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종단이 어려운 이웃과 신도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 내일처럼 적극 도울 때 신도는 저절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선 정사는 또한 지난 6월 종단 사회복지재단 산하에 일어난 직원과의 불미스러웠던 일을 언급하며 "이번 일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한 센터장의 요구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각 기관장들에게 위탁운영 기간동안 근로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개선책도 마련했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인선정사는 "총지종의 미래는 스승의 개인적 역량과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성직자인 스승님들이 수행자적인 인품과 언행, 청렴한 사고를 바탕으로 청정하고, 사회적 역할을 잘해 나간다면 우리 불교총지종은 분명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총지종은 1972년 12월 24일 원성 대종사의 서원아래 창종했으며, 현재는 승직자(스승) 70여 명과 교도 10만여 명, 사원 30여 곳을 산하에 두고 있다. 내년인 2022년 12월 24일이 창종 50주년 기념일이다.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제자리찾기 결의

교구본사주지협의회 6월29일 백양사 회의에서 결의문 채택
총무원 등 종무 현안 보고도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6월 29일 장성 백양사에서 제69차 회의를 진행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경우, 이하 본사주지협)는 6월 29일 장성 백양사에서 제69차 회의를 열고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부회장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해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직지사 주지 법보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은해사 주지 덕관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선암사 주지 금곡 스님,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등 18명이 참석했다.

본사주지협에 따르면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는 일제 강점기 때 약탈당했으나 원 소장처인 월정사와 불교계 노력으로 환수됐다. 그러나 환수된 이후 최적의 관리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원 소장처로 돌아오지 못한 채 현재까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특히 월정사가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박물관 수준의 왕조실록 · 의궤박물관을 건립하고 원 소장처로의 귀환을 준비해 왔으나 여전히 환지본처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본사주지협은 결의문에서 "인간의 삶과 정신을 담은 문화재는 과거를 거슬러 미래를 여는 고귀한 인류문화유산"이라며 "문화재의 가치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새로운 인식으로 배가되며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그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강구할 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낸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를 더욱 발휘할 수 있다"며 "고귀한 문화유산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환수되어도 박물관 수장고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사주지협은 "조선왕조실록 · 의궤가 원래 자리인 오대산 월정사로 돌아오는 일은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출하는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에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오대산사고본이 원 자리인 오대산에 봉안돼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무원은 대종사 · 명사 법계 품서대상자 82명에 대한 품서식 일정을 10월 경으로 보고했으며, 종단 현안 중 하나인 각종 규제법령에 대한 개정경과를 브리핑했다.

포교원도 이날 회의에서 포교종책개발 설문조사를 비롯해 신도조직 활성화 방안,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 등 추진과제를 브리핑하고 본사 주지 스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했다.

경우 스님은 "종단과 교구본사, 말사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진일보하는 백년대계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본사주지협은 임기만료를 앞 둔 김상기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관리이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차기 회의는 9월 중 고운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 장성=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제26대 호법원장 혜일 스님 취임

6월25일 법련사 대불보전서
"엄정한 법집행 · 화합 방점"



태고종 제26대 호법원장에 취임한 혜일 스님이 임기 중 엄정한 법집행으로 승가의 위의를 바로 세우고 종도 권익 보호와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사진〉

태고종은 6월 25일 서울 법련사 대불보전에서 신임 호법원장 혜일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제주 정방사 주지 혜일 스님은 지난 4월 태고종 제142회 정기종회에서 신임호법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이날을 기점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혜일 스님은 이날 종단의 최고 사법기관인 호법원의 수장으로서, 종헌종법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약속하는 한편 승가화합과 종도들의 권익보호에 최우선의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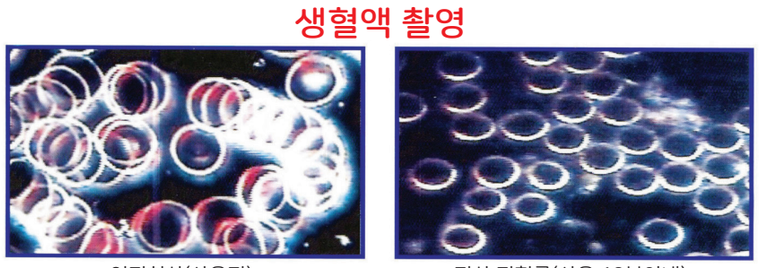
혜일 스님은 "종단 삼부기관의 한 축으로서 호법원이 바로서고 나아가 종단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도록 헌신과 열정을 다하겠다"며 "종단 큰 스님들과 종도 여러분의 원력이 함께할 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스님은 "우리 종단은 지난 사태로 힘든 시기를 거치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고 이 과정에서 종단의 위상과 기강, 사회적 신뢰도 추락했다"며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한다. 종단이 무너진 승풍을 진작시키고 화합승가를 이뤄낼 때 태고종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도 "신임 호법원장 혜일 스님은 종단과 문도회 등에서 두루 요직을 역임한 분으로서 풍부한 경륜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며 "종헌종법에 따라 종단의 위의를 높이고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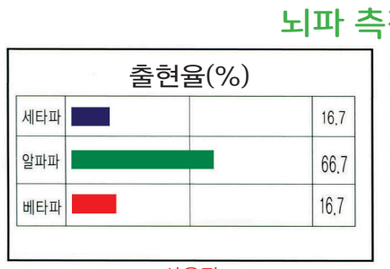
세정제인 비누가 감기, 몸살,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과 아토피, 무좀을 없애주며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누!!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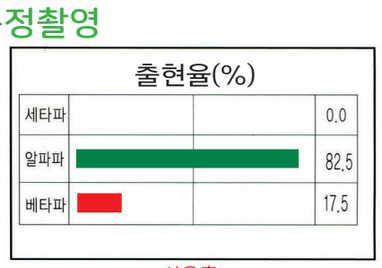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 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폐렴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정균 감소 기능을 지닌 비누

체험사례
◎ 개발자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를 90년대 말에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0여년간 감기나 몸살로 약을 먹어본 적도, 드러누워 본 적도 없이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 BLOOD MATE®를 사용하기 전에는 안경을 써야 신문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안경을 쓰지 않고 신문을 보고 있으며 눈동자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 BLOOD MATE®를 설명서대로 사용하고 누워있으면 세포 움직임(혈액순환)이 손바닥에서 스물스물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어깨, 목, 허리 통증을 없애주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 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비누 : 120g 12개 300,000원
ORAL MATE® 치약 : 120g 3개 63,000원
363,000원 ➡ 100,000원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